

# 朴大統領 年頭記者会見에서

## 重化學工業政策을 宣言코

## 汎國民의 科學化를 力說

(前 略)

경제개발 5개년계획도 불리한 여건속에서나마 부지런히 일해 남보다 잘 살아보자는 것이다.

3차계획의 지표는 농어촌을 중점개발하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며 수출의 획기적증대를 기하는 것이다.

그중 중요한것은 수출 증대이다. 외화를 많이 벌여 농촌에 투자하면 농어촌은 부강해진다. 1백억 \$ 수출, 한사람당 GNP 1천 \$로 반드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불가능하지 않다.

물적·인적자원을 최대로 활용하고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

특히 기술개발에 정부·국민이 최대한 노력해야한다. 감소 절약하고 저축해서 가장필요한 내자(內資)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자는 얼마든지 꾸어올 수있다. 흔히 새역사를 창조하자는 말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땀과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는 바야흐로 중화학공업 단계에 들어섰다. 나는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에 온갖 힘을 기울일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또한 전국민에게 과학화 운동을 전개하고자 아울러 제의한다.

과학기술개발 없이는 중화학공업육성은 기대할 수 없다. 모든 경제 목표달성은 전국민이 범국민적 과학 기술개발에 참여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국민학교 어린이에서부터 대학생 성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과학을 습득하고 생활화 해야한다.

80년대 1백억 \$ 수출이 달성되면 그때 중화학제품이 수출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해야한다. 이를 위해 조선·기계·석유화학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80년대초 생산시설능력을 보면 제철능력은 현재의 1백 10만t에서 1천만t으로, 조선능력은 현재 25만t에서 5백만t으로, 정유시설은 현재 39만「배럴」에서 94만「배럴」까지

「에틸렌」은 현재 10만t에서 80만t수준까지, 전력은 현재 3백80만kw에서 1천만kw까지, 「시멘트」는 현재 8백만t에서 1천6백만t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자동차는 현재 연산(年産) 3만대에서 연 50만대까지 늘려야 할 것이다. 그 외 전자공업부문등도 있지만 중요한 것만 얘기했다. 정부는 지금부터 동·남·서해안에 대단위 국제규모의 공업대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첫째 제2의 종합제철공장 건설을 서둘러야겠고 대단위 기계공업단지와 蔚山석유화학공업단지와 같은 제2의 석유, 화학공업단지도 만들어야겠다. 또 1백만t급 조선소도 1~2개 더 만들어야 하며 대단위 전자부품단지, 제2 제3의 馬山수출단지등도 만들어야 하겠고 현재 추진중이기도 하다.

정부도 이런 방면에 중점시책을 펴나가겠다. 농촌에도 새마을을 뒷바침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들어설 것이다. 특히 4대강유역개발사업을 위시해서 하천정리도 해야겠고 10개년계획으로 전국토 녹화사업을 벌여 80년대 초에는 전국토를 푸르게 하겠다.

농어촌 진화사업은 77년엔 1백%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기술을 위해 과학적인 직업훈련을 강화해서 과학생활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런 사업 모두를 비「인플레이」적으로 강력히 밀고 나가면 80년대 1백억 \$ 수출은 반드시 달성된다.

도시나 농촌이나 많은 일터를 마련해주고 국민모두가 일터에서 땀흘리고 열심히 일하면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며 이것이 바로 국력을 배양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이밖에 근로대중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정부는 74년부터 사회보장연금제도(국민복지연금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後 略)